국립공원관리공단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일억년의 아름다움 입석대·서석대		
활동목표	입석대와 서석대가 무등산에서 갖는 상징적인 의미와 유래를 알아보고 주상절리의 생성원리를 이해함으로써 탐방객들에게 무등산을 좀 더 친숙하게 알린다.		
해설주제	입석대와 서석대		
해설재료	사진자료	소요시간(″)	90″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시간(″)	비고
시작	인사	- 첫인사 - 스트레칭	10″	-
주제별 해설	국립공원 소개	- 국립공원 이해하기 - 무등산국립공원 소개하기	10″	-
	입석대 소개	- 주상절리 소개 - 입석대의 유래 및 기능	15″	
	이동	- 입석대 → 서석대로 이동	30″	
	서석대 소개	- 서석대의 유래	15″	
정리	마무리	- 의견정리 후 마무리	10″	-

신청인 :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국립공원관리공단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일억년의 아름다움 입석대·서석대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인사	여러분 안녕하세요. (탐방객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무등산국립공원의 보석과 같은 입석대와 서석대에 대해 알려드릴 자연환경해설사 ○○○입니다. 이렇게 저희 무등산국립공원을 찾아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서 오셨나요?(참여유도/의견정리) 여러분 주의를 한번 둘러보실래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풍경이 정말 아름답지 않으세요?(대답유도) 올라오면서 많이 힘 드셨지만 확 트인 풍경에 오길 잘했다는 생각 드시지요! (참여유도/유대감형성/날씨 상황에 따라 멘트 변경) 네, 좋습니다. 그럼 앞으로 1시간 정도 저와 함께 웅장한 암석미가 마치 수정병풍과 같다 칭송 받고 있는 입석대와 서석대를 통해서 자연의 경이로움과 아름다움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으로 친해지기	(장소의 특성상 놀이보다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주의집중) 그럼 시작하기에 앞서 입석대의 신령스러운 기운과 시선한 공기를 힘껏 마시며 스트레칭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안한 자세로 서 주시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몇 가지 동작을 실시한다. 마지막은 숨쉬기로 마무리) 어떠세요? 간단한 몇 가지 동작이지만 신선한 공기와 더불어 스트레칭 하니까 움직이기 전보다 몸이 한결 개운해 지셨지요! 네~ 좋습니다. 그럼 입석대를 만나보기 전에 국립공원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공원 이해하기	여러분 국립공원이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국립공원이란 자연생태계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자연경관을 후손에게 건강하게 물려주기 위하여 국가에서 지정한 곳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렇게 아름다운 국립공원이 “나 하나쯤이야”하는 마음을 가진 일부 사람들로 인해 멍들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느끼는 소중한 자연자원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곳에 살고 있는 야생

	동·식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고성방가 등의 행동은 조심해 주시고, 자연은 그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참여유도/의견정리)
무등산 국립공원	여러분 먼저 입석대와 서석대를 알아보려면 두 절경을 품고 있는 무등산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아셔야겠죠? 마치 어머니 품같이 포근하고 아름다운 무등산은 2013년 3월 4일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 되었습니다. 무등산국립공원의 지리적 위치는 광주광역시 동구와 북구, 전남 화순군, 담양군 이렇게 3시·도에 걸쳐 자리 잡고 있으며, 높이는 해발 1,187m이고 무등산의 무등은 (없을 무, 등급 등) 자를 사용하여 '등급을 매길 수 없는 산' 즉 등급을 매길 수 없을 만큼 아름다운 진산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평소에 무심하게 말하던 무등산과 의미를 알고 난 무등산 왠지 다르게 느껴지시지요? 자, 본격적으로 눈을 돌려 앞쪽에 위치한 입석대(입석대를 가리키며)를 봐 주세요. 해발 1,017m에 자리 잡고 있는 입석대는 위쪽에 자리한 (서석대쪽을 가리키며) 서석대 1,100m와 더불어 천연기념물 제46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주상절리대	그렇다면 입석대(立石臺)와 서석대(瑞石臺)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여유도/ 네~ 맞습니다. 바로 주상절리 때문입니다.) 여기서 주상절리는 기둥(주), 모양(상), 쪼개진다(절리)라는 말이 합쳐진 뜻으로 즉 바위가 기둥 모양으로 쪼개져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곳 무등산의 주상절리는 특별하게 산 위에 형성되어 있고 만들어진 시기 또한 백악기 후기 약 7천5백만 전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상절리의 형성 원리는 화산이 폭발하여 솟구쳐 오른 용암이 지표로 흘러나와 급격하게 냉각되고 수축되는 과정에서 틈이 생기고 그 틈에 물이 스며들어 얼고 녹는 과정이 반복 되면서 쪼개지고 풍화를 받아 지금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입석대	입석대는 보면 높이가 10~16m에 이르고 5~8모로 된 돌기둥이 우람하게 둘러서 있는 형상이 무척 신비로워 서석대와 함께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하고 있습니다. 동쪽 바위를 보시면 입석이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立石'은 '선돌'을 의미하고 지금 봐도 신기하지만 과학이 발달하지 않았던 원시사상에서는 더욱 신령스럽게 여겨 이곳에

	축단을 세우고 가뭄이나 전염병이 심할 때는 지방 관리들이 하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제를 지내던 천제단의 역할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중기까지만 하여도 입석대의 한 가운데 입석암이라는 암자가 자리 잡고 있었고, 입석암 이외에도 불사의사, 염불암 등 절과 암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입석대 주변 바닥에 있는 주춧돌 흔적을 통해 확인 가능하고, 그만큼 이곳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입석대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여기서 아쉽지만 입석대와는 작별 인사를 하고 다음 장소인 서석대로 이동하시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참여유도/의견정리 후 서석대로 이동한다.) (이동중간에 계절별 식생 간단히 설명해준다.)
서석대	앞에 보이는 멋진 풍경이 바로 서석대 입니다. 서석대는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줄지어 서 있어서 저녁노을이 물들 때 햇빛이 반사되면 수정처럼 강한 빛을 발하면서 반짝거리기 때문에 '서석의 수정병풍'이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서석의 아름다움을 많은 문인들이 예찬 하였는데, 그 중 노산 이은상은 '돌을 그저 돌이라 부르지 않고 서석이라고 부른 것은 예찬의 뜻을 벌써 거기에 표한 것이지만 나는 그 예찬을 과하게 보려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부족하게까지 하다'라는 말로 서석의 아름다움을 표하였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서석의 수정병풍의 모습이 상상 되시나요? (잠시 1분정도 서석대 모습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석대는 앞서 말씀 드렸듯이 입석대와 더불어 2005년 12월 16일 천연기념물 제 465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서석대는 해발고도 1,030m~1,080m에 걸쳐 있으며, 가장 높은 단의 높이는 24~26m로 이는 한반도 육지에서는 가장 큰 주상절리대로서 자연유산으로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상부는 다각형을 이루어 마치 거북의 등껍질 모양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독립적인 암괴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서석대가 무등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 무등산의 유래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신증동국여지승람]은 고려사의 기록에서 '이산 양지바른 언덕에 돌기둥 수십 개가 즐비하게 서 있는데 높이가 가히 백 척이나 된다. 그래서 산 이름을 서석이라 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무등산의 옛 이름 서석산 이것만 보더라도 서석대가 얼마만큼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함께 무등산의 천연기념물인 입석대와 서석대를 만나 보셨는데요.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참여유도/ 의견정리)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당분 드리고 싶은 말은, 자연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일 때가 가장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보이는 흔한 풀꽃부터 우람한 암석까지 우리가 애정을 갖고 지켜주지 못한다면 머지않아 사라져 버릴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 우리 후손들에게도 온전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내려가시는 길 안전산행 하시고 저는 지금까지 무등산국립공원 자연환경해설사 ○○○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자료	
입석대	
서석대	